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 초석 다지다

여러 성과 달성... 잠재력 높은 강소도시 입증

2024년 남원시정은 새로운 남원,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진 해였다. 을 한해 최경식 시장과 1,500여명 공직자들은 전방위 발품 행정으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72%를 기록, 2024년도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제2중앙경찰학교(이하 경찰학교) 후보지 선정부터 역대 최대 75건의 공모사업 선정 2,069억원 확보, 각종 외부평가 43건 선정 인센티브 8억 800만원 확보, 호평일색 '남원 대외이미지' 위상 도시경쟁력 브랜드 성공 등 여러 성과를 달성하면서 잠재력 높은 강소도시 남원임을 입증, 역동적으로 달려온 2024년 남원시정의 분야별 주요 성과를 알아본다.



최경식 남원시장



2024 문화의 달 행사

▲국가기관 유치

올해 남원시정 최대 성과는 스포츠 영재를 키우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확장과 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이다.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제 20대 대선 전북 지역공약사업을 남원에 유치한 국가사업으로 제2의 양지인 선수를 육성할 유소년첨단 훈련시설을 건립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아젠다이다.

최근 문체부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이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으며, 시는 사업비 490억원 전액 국비를 확보하고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대한체육회, 전북도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는 오는 2028년 개관할 예정으로 연간 10만여명이 방문, 125억원의 수익이 창출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찰학교 남원 후보지는 지리산 비래봉 아래 국유지로 부지확보가 용이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성이 뛰어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 실현의 최적지로 꼽혀 향후 제2중앙경찰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연간 5,000명에 달하는 교육생과 300명의 임직원 상주 등으로 연간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장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남원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사업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모사업들이 빛을 발했다.

일례로 곤충산업 거점단지 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4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 에코 스마트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선정 등 올해 76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 2,079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대 최대의 실적을 거뒀다.

한편 2022년 63건의 1,627억원, 2023년 100건 2,020억원으로 해마다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여 민선 8기 들어 총 239건의 5,726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해 전북대 글로벌대학 선정에 이어 올해 바이오 생명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원광대의 글로벌대학 선정, 교육특구, 학교복합화 등 교육부 3대 핵심사업에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확정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

올해 남원시정 최대 성과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등

올 76건 사업 정부 공모 선정

국가예산전략센터 설치 통해

장기 국비 확보 기틀도 마련

춘향제 · 문화의 달 등 개최

대외적인 행사 흥행에 성공

정주환경 개선 · 소통 추진도

성, 지리산권 교육 도시를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역대 최대 확보하는 쾌거도 달성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확보하는데 이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도내 유일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남원시가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무려 412억원이다.

이로써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 미꾸라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운영 △남원 인재학당 건립 · 운영 등 총 6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지리산권 거점도시 남원의 앞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국가 예산확보 증가

남원시는 국가예산확보액도 민선 8기 이후 지난 2년간 국가예산 3,265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년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활동



춘향제 대동길놀이

1,600억원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시장은 취임 직후 2022년 8월에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 중앙부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 단계부터 중점 관리하고자 기존 남원시 세종사무소의 기능을 강화해 '남원시 국가예산전략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이곳을 국가예산 전초기지로 활용하면서 매주 부처와 국회 출장으로 발품행정을 직접 선보이며 가능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찾아 때로는 읍소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남원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국가 예산 신규사업 국비확보액이 2023년 92건687억원에서 2024년 128건 774억원으로 큰 폭으로 상승(13%)이며, 장기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각종 외부 평가 확보 호평

올해 남원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것은 외부 평가 호평으로 이어진 것으로,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선정 △상반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 실적 '1분기 최우수기관' 선정 △2024 지자체 합동평가 7년 연속 전북 1위 달성 △2024 농기계임대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평가 대상 수상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전

북만들기' 우수상 선정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총 43건에 선정, 인센티브 8억800만원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남원시 위상 브랜드 성공

올해 남원시는 5월에 열린 춘향제에 이어 10월에는 2024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제32회 흥부제, 문화유산야행, 문화의 달 등 가을 축제를 연계 개최하는 등 대외적인 행사를 흥행시키며 '남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하기도 했다.

글로벌 춘향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춘향제는 올해 117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흥행했으며, 특히 국가기념일인 문화의 달 개최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한 이번 문화의 달 행사의 경우 전문문화공연예술의 도시 남원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됐다.

특히, 남원국제드론제전은 아이들에게 드론과 로봇 등 첨단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와 꿈을 연결해 주는 좋은 계기를 선보여 그야말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정주환경 개선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촘촘한 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은 올해도 계속됐다. 교육분야에서는 지난 2월에 '교육발전특구



SW미래채움 전북센터 개관

시범지역 선정된 것도 모자라 8월에는 학교복합시설 공모가 선정돼 화제를 모았으며 12월에는 소프트웨어인재를 양성하는 SW미래채움 전북센터'까지 개관, 지리산권 교육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교육여건이 마련된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지역 내 복지지원 연계 강화) 부문에 안부살림 우선서비스 시범사업을 응모해 최종 선정되면서, 집배원이 대면 배송해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상황 및 도움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연계·지원하는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행안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남원 복지안전 119 애플리케이션(APP)을 자체 개발·보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40억원 확보에 이어 지난 9월 10일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이번 지구 선정을 통해 60ha 규모의 ECO 스마트팜을 스마트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스마트팜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문화·관광·체력이 어우러진 미래농생명 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

시는 올해 시민 소통창구를 확대하는 등 더 확장된 행보도 이어갔다. 상반기 '2024년 시민 공감 열린대화'를 통해 각 읍·면·동 여러 단체들을 초청해 시장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체 개발·보급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40억원 확보에 이어 지난 9월 10일에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농생명산업지구 선도지구'에 선정됐다.

또한 '읍면동장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읍·면·동장이 직접 매일 1가구 이상을 방문해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고 생활 전반에 걸친 예방위주 주민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그렇게 11월 말까지 총 1만4,360세대를 방문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을 한 해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주시는 우리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계셨기에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